

**대한항공, 2005년까지  
신형기 도입 등 11조 투자**

대한항공은 올 한해동안 7천7백억원을 들여 8대의 신형기를 도입하는 등 오는 2천5년까지 11조원을 투입, 신형기 1백50대를 도입하고 노후기 54대를 매각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기 현대화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유 기종의 신형화 및 대형화작업의 첫단계로 우선 올해중 4백석 규모의 B747-400기 4대와 1백65석 규모 MD-83기 3대, 대형 화물기인 B747-400F 1대 등 모두 8대를 도입키로 했다. 대신 지난 75년 도입한 DC-10기 3대와 78년 도입한 B727기 3대 등 6대의 노후기는 매각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보유비행기의 평균 나이(機齡)는 95년 현재 85년에서 96년 78년, 2천년 7년, 2천5년 6년으로 낮아져 전세계 평균 기령(95년 현재 126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고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 정비비용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비행기 물갈이를 과감히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공항 다음달부터  
국제선 항공기 취항**

빠르면 2월부터 대구공항에 국제선 항공기가 취항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1월 15일 "건설교통부가 대구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취항을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빠르면 2월 8일 대구~오사카노선이 처음 개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사카노선에는 매주 목,일요일 하루 두차례씩 160인승 항공기가 운항하게 된다. 대구~중국 칭따오(靑島)노선도 올해 상반기중 개설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인터넷으로 예약**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항공권 예약시스템을 개발,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면 누구나 Telet Mode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인터넷 예약시스템과 접속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필요한 항공권 노선과 일시 등 예약전과정이 한

글로 처리돼 있어 인터넷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항공사나 여행사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다"며 "Telet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쓰이는 WWW(월드와이드웹)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개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항공권 환불 간소화**

대한항공은 그동안 번거롭던 항공권 환불절차를 지난 1월 10일부터 대폭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은 항공권을 쓰지 않고 환불을 원할 경우 환불요청을 한뒤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환불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항공권 환불은 본인이나 위임장을 소지한 사람이 항공사를 직접 방문해 환불신청을 하면 길게는 1달 이상 기다려뒤 다시 항공사를 찾아가 돈을 받아

가도록 돼있었다.

## 美, 30개국과 항공시장 개방 합의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해에 약 30개국과 항공시장개방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영국과의 협상에 실패해 큰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체결된 항공시장 개방 협정으로 일본과는 화물항공운송 부문에서 진전이 있었고 중국과도 미국 항공기의 논스톱 북경 취항이 가능해졌다. 필리핀, 홍콩과도 항공시장 개방이 합의됐으며 태국과는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나라의 항공시장을 개방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영국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영국은 지난 77년 체결된 항공 협정을 개정해 규제조항을 철폐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협상을 가로막은 장애물은 런던 히드로 공항을 미국항공사들에 개방하는 문제이다. 영국은 미국의 히드로 공항개방요구를 거부했다. 영국 외에도 미국의 항공시장 개방 압력에 굴하지 않은 나라는 많은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미국은 이번에 유럽 9개국과의

협정체결을 바탕으로 이들 나라들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은 우선 독일과 올해에 항공시장개방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 美-中 직항로 개설 합의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양국간 직항로 개설 등을 뼈대로 하는 항공협정에 서명했다고 페데리코 페나 미국 교통장관이 발표했다.

페나 장관은 양쪽이 이날 베이징에서 협상을 벌인 뒤 직항로 개설 등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이 빠르면 금년 4월부터 주 3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횟수를 늘려 주 9회씩 디트로이트~베이징을 운항하고 중국쪽에서는 중국남방항공공사가 직항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서는 또 여객용 항공기 외에도 미 화물항공사인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에버그린 국제항공으로부터 중국의 직항로 개설권을 넘겨 받아 주 4회 운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기착지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와 페어뱅크스로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다른 항공사에 대한 좌석 분할권도 허용돼 미국으

로부터의 승객이 중국 국내항공사를 이용함으로써 중국내 각지 연결이 쉽게 되도록 했으며 중국 쪽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국내 5개시로 연결되도록 미 항공사와 계약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필리핀·홍콩·마카오 등과도 직항로 개설에 합의한 바 있는 페나 장관은 "이번 협정은 전세계를 연결하는 항공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며 교역상대국과 소비자들에게 보다 낮은 요금에 많은 선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대한항공

### 항공기술 훈련생 모집

대한항공이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과정의 항공기술훈련생을 모집하였다.

서울지역에서 72명, 부산지역에서 36명등 모두 108명의 훈련생을 선발할 이번 모집은 인문계 고교 졸업자중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71년 1월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훈련원생의 선발은 1차 서류전형등 총 5차에 걸쳐 실시되며 선발되면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과 훈련수당 및 중식등을 동사가 부담한다.